

2022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

2022년 8월 23일 조사국제부

< 내용 요약 >

1. (조사배경)

- 2022년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을 조사하여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 파악 및 주요국과 비교
 - 2021년 수행한 '주요국 가계 금융자산 비교'의 시계열적 추적·조사를 위해 올해도 주요국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분석
 - 상기자료의 경우 단기적 변화보다 장기적 추세 변화에 대한 파악이 중요함에 따라 향후 매년 추이를 조사·업데이트할 예정

2.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

- 주요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5.6% 수준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높음('21년말기준)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2021)

단위 %

	한국	미국	일본(2020)	영국	호주
비금융자산	64.4	28.5	37.0	46.2	61.2
금융자산	35.6	71.5	63.0	53.8	38.8

- 호주를 제외한 미국, 일본, 영국 모두 가계자산의 50% 이상이 금융자산이며, 미국은 그 비중이 71.9%로 가장 높음

3. (가계금융자산 구성)

- 가계 금융자산 구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현금·예금,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영국과 호주는 보험·연금 비중이 높았음

각국 금융자산 비중 구성 비교(2021)

단위 %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현금·예금	43.4	13.2	54.2	27.1	21.6
금융투자상품	25.4	58.0	16.3	15.6	18.2
(주식)	20.8	40.2	10.4	11.1	17.3
(채권)	2.3	2.3	1.3	0.2	0.1
(펀드)	2.3	15.5	4.5	4.3	0.8
보험·연금	30.4	28.6	26.7	53.1	58.2
기타	0.8	0.2	2.8	4.2	2.0

- 한국 가계 금융자산의 43.4%가 현금·예금이었고 보험·연금(30.4%), 금융투자상품(25.4%)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미국은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 비중(13.2%)이 낮고 금융투자상품이 58%로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일본은 현금·예금 중심의 금융자산 구성을 보였으며(54.2%)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소폭 증가하여 16.3% 기록
- 영국은 보험·연금 비중이 53.1%로 가장 높았으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고 현금·예금과 금융투자상품 비중 소폭 증가
- 호주는 보험·연금 비중이 58.2%로 가장 높았으며 현금·예금은 21.6%, 금융투자상품은 18.2% 비중 차지

4. (시사점)

- 2020~2021년 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은 코로나19라는 공통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20년부터 코로나19 정점까지는 소비가 침체되고 저축률이 높아져 현금·예금 비중이 증가함
 - 2021년에는 백신 보급으로 인한 리오프닝과 누적된 저금리 기조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였고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함
- 한편 한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금융자산 또한 현금·예금(43.4%) 위주로 구성
 -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위해 비금융자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 있음
 -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금융투자가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

1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가. 한국

□ (가계자산 구성) 한국은 가계*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전체의 64.4%를 차지하며, 금융자산은 35.6% 차지('21년말 기준)

*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 비영리단체(Non-profit institutions serving households, NPISH) 포함

한국 가계의 자산구성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금융자산	63.4	63.1	64.4	64.4	63.6	64.4
금융자산	36.6	36.9	35.6	35.6	36.4	35.6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금융자산 구성) 금융자산에서 현금·예금의 비중이 43.4%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상품은 25.4%를 기록('21년말 기준)

한국 가계 금융자산구성

단위 %

연말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주식	채권	펀드	소계		
2016	43.7	15.7	5.1	3.2	24.0	31.8	0.5
2017	43.1	17.4	4.2	3.0	24.7	31.8	0.5
2018	44.3	15.2	4.2	2.9	22.3	32.9	0.5
2019	44.8	15.3	3.6	2.8	21.7	32.8	0.6
2020	43.4	19.4	3.4	2.4	25.2	30.8	0.7
2021	43.4	20.8	2.3	2.3	25.4	30.4	0.8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18년부터 주식 비중이 증가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비중을 견인하고 있으며 보험·연금의 비중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추세
 - 2021년 가계의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를 통한 자금운용은 시가 평가 등을 배제하여 총 115조원으로(국내주식 87조 6천억원, 해외주식 22조 9천억원, 펀드 4조 8천억원) 사상최대치를 기록¹⁾
 - 자산가치 변동분까지 반영한 연말 통계를 비교하면 2021년 가계는 총 147조원의 주식을 순취득

1) 출처: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표 중 “2021년중 금융거래표”

나. 미국

- (가계자산 구성) 미국 가계(NPISH 포함)자산 중 금융자산은 2021년 말 기준 전체 자산의 71.5%로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

미국 가계의 자산구성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금융자산	28.8	28.3	29.7	28.1	27.5	28.5
금융자산	71.2	71.7	70.3	71.9	72.5	71.5

* 자료 : B.101 Balance Sheet of Household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Balance sheet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비금융자산은 전년대비 15.9%(+\$6.9조) 이상 증가한 반면 금융자산은 11.8% 증가(+\$12.4조)하여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
- (금융자산 구성) 미국 가계 금융자산 중 현금·예금은 13.2%로 다른 자산에 비해 비중이 낮고, 금융투자상품이 58.0%로 전체 금융자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21년말 기준)

미국 가계 금융자산구성

단위 %

연말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주식 및 출자지분*		채권	펀드	소계		
		주식	주식 외 출자지분					
2016	13.2	19.7	13.3	5.8	11.5	50.2	33.5	3.1
2017	12.5	21.3	13.2	5.3	12.2	52.0	32.6	2.8
2018	13.0	19.5	13.9	6.2	11.7	51.3	32.8	2.9
2019	12.1	22.0	13.1	6.1	12.9	54.1	31.1	2.7
2020	13.4	23.6	12.6	4.8	13.1	54.1	29.9	2.6
2021	13.2	27.2	13.0	2.3	15.5	58.0	28.6	0.2

* 자료 : Financial Accounts of the US - B.101.h Balance Sheet of Household(FRB)

* 주식(corporate equities) 및 주식 외 출자지분²⁾(equities in noncorporate business)

** 보험·연금 : 공적·사적 퇴직연금(DB형·DC형), 개인은퇴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생명보험회사에 예치된 연금을 포함하며 국민연금은 불포함

- 주가 상승으로 주식의 자산가치가 증가하여(+\$2.5조) 가계 금융 자산 중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전년대비 3.9%p 증가

2) 주식 외 출자지분 : 개인 사업부문(non corporate businesses)에 출자지분으로 동업회사(partnerships),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ies), 자영업(sole proprietorships), 임대소득자(individuals who receive rental income), 비기업농장(Noncorporate farms) 등으로 구성되며 일부 국가의 관행과 달리 미국은 금융 계정 중 가계부문이 주식 외 출자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

다. 일본

- (가계자산 구성) 일본 가계(NPISH 포함) 금융 자산은 전체 자산 중 63%를 차지하였음('20년말 기준)

일본 가계의 자산구성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비금융자산	38.3	37.5	38.0	37.9	37.0
금융자산	61.7	62.5	62.0	62.1	63.0

* 자료 : SNA Annual Report on National Accounts for 2020 Summary (일본 내각부, '22.1.24)

- (금융자산 구성) 금융자산 중에서는 현금·예금이 54.2%로 절반 이상을 구성('21년말 기준)

일본 가계 금융자산구성

단위 %

연말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주식	채권	펀드	소계		
2016	52.9%	9.7%	1.4%	4.1%	15.2	29.0%	2.9
2017	52.1%	11.7%	1.3%	4.1%	17.0	28.0%	2.8
2018	53.7%	9.8%	1.3%	3.6%	14.8	28.5%	3.0
2019	53.4%	10.3%	1.4%	3.9%	15.6	28.0%	3.0
2020	54.8%	9.5%	1.4%	4.0%	14.9	27.6%	2.8
2021	54.2%	10.4%	1.3%	4.5%	16.3	26.7%	2.8

* 자료 : 자금순환통계 (일본은행, '22.6.27)

- 2021년에는 현금·예금 비중이 소폭 축소되었고 주식과 펀드가 각각 0.9%p, 0.5%p 상승
 - 일본 펀드 자산은 주로 해외주식에 투자되어(41%) 달러 고평가 및 미국 주식 시장 호황으로 펀드의 비중 소폭 상승
- 지속되는 정부의 금융투자 장려정책(Doubling Asset-based Incomes Plan)에도 불구하고 현금·예금이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54.2%)

라. 영국

- (가계자산 구성) 영국 가계(소규모 개인 사업자 포함, NPISH 불포함) 자산 중 금융자산은 53.8%의 비중 차지('21년말 기준)

영국 가계의 자산구성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금융자산	45.0	45.7	46.4	45.2	44.6	46.2
금융자산	55.0	54.3	53.6	54.8	55.4	53.8

* 자료 : Preliminary UK national balance sheet estimates (영국 통계청, '22.5.2)

- 2021년의 영국 주택가격 상승이 영국 가계자산 증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로 인해 비금융자산의 비중 확대
- (금융자산 구성)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연금이 53.1%로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금융투자상품은 15.6% 차지('21년 말 기준)

영국 가계 금융자산구성

단위 %

연말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주식	채권	펀드	소계		
2016	24.0	9.3	0.2	4.5	14.0	58.4	3.6
2017	24.1	10.0	0.2	4.3	14.5	58.0	3.4
2018	25.3	9.9	0.2	4.1	14.2	57.0	3.5
2019	25.1	10.5	0.2	4.2	14.9	56.2	3.8
2020	25.7	9.8	0.2	3.9	13.9	56.4	4.0
2021	27.1	11.1	0.2	4.3	15.6	53.1	4.2

* 자료 : Preliminary UK national balance sheet estimates (영국 통계청, '22.5.2)
Dataset 710 Financial balance sheets- SNA 2008(OECD)

- * 보험·연금(insurance, pensions and standardised guarantees) : 손해보험 수리적책임준비금(non-life insurance technical reserve), 생명보험수급권(life insurance and annuity entitlements), 퇴직연금(pension schemes)³⁾
- 영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DB·사적연금의 수급권(pension entitlements) 자산가치가 감소하여 보험·연금 비중 소폭 축소
- 코로나19로 가계의 저축이 증가하면서(저축률 2020년 5.3%에서 2021년 16.9%로 증가) 현금·예금 비중이 전년 대비 상승

3) 퇴직연금수급권(pension entitlements), 퇴직연금운용에 대한 퇴직펀드청구권(claims of pension funds on pension managers), 비퇴직연금혜택에 대한 수급권(entitlements to non-profit benefits)으로 구성

마. 호주

- (가계자산 구성) 호주 가계(자영업자 등 포함, NPISH 불포함)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38.8%로 비금융자산 비중이 더 높음('21년말 기준)

호주 가계의 자산구성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비금융자산	60.0	60.3	59.3	57.5	58.4	61.2
금융자산	40.0	39.7	41.7	42.5	41.6	38.8

* 자료 : Australia National Accounts : Finance and Wealth (호주 통계청, '22.6.30)

- 저금리와 코로나19 완화 기대감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해 비금융자산 비중 증가함
- (금융자산 구성)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연금이 5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현금·예금은 21.6%, 금융투자상품은 18.2%로 나타남('21년말 기준)

호주 가계 금융자산구성

연말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	기타**
		주식	채권	펀드	소계		
2016	21.8	18.1	0.2	0.8	19.1	57.6	1.5
2017	21.4	18.2	0.2	0.8	19.2	57.7	1.7
2018	21.8	18.5	0.2	0.8	19.4	57.0	1.8
2019	20.1	17.8	0.1	0.8	18.7	59.3	1.9
2020	21.5	17.4	0.1	0.8	18.3	58.1	2.1
2021	21.6	17.3	0.1	0.8	18.2	58.2	2.0

* 자료 : Household Balance Sheet,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Finance and Wealth (호주 통계청, '22.6.3)

* 보험기술준비금(insurance technical reserves) : 생명보험준비금과 퇴직연금기금에 대한 가계의 순자본, 미결제청구에 대한 보험료 및 준비금의 선납금

** 기타 : 기타미수금, 대출금

- 호주 및 국제 주식시장 호황이 슈퍼애뉴에이션의 자산가치에 반영되고 고용 증가로 슈퍼애뉴에이션 신규 가입 및 적립이 증가하여 가계 금융자산 내 보험·연금 비중 증가
- 호주의 경우 전년 대비 현금·예금, 금융투자상품, 보험·연금의 비중이 거의 변동 없음

2 주요국 비교

- (가계자산 구성) 2021년 기준으로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의 가계자산 내 금융자산 비중이 상당히 낮았음

주요국 가계자산 구성 비교(2021)

	한국	미국	일본(2020)	영국	호주
비금융자산	64.4	28.5	37.0	46.2	61.2
금융자산	35.6	71.5	63.0	53.8	38.8

단위 %

- 2021년 주요국의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각국의 비금융자산 비중 소폭 상승*

* 한국 +0.8%p, 미국 +1.0%p, 영국 +1.6%p, 호주 +2.8%p, 일본 2021 통계 미발표

- (금융자산 구성) 가계 금융자산 구성을 비교한 결과 한국과 일본은 현금·예금, 미국은 금융투자상품, 영국과 호주는 보험·연금 비중이 높았음

각국 금융자산 비중 구성 비교(2021)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현금·예금	43.4	13.2	54.2	27.1	21.6
금융투자상품	25.4	58.0	16.1	15.6	18.2
(주식)	20.8	40.2	10.4	11.1	17.3
(채권)	2.3	2.3	1.3	0.2	0.1
(펀드)	2.3	15.5	4.5	4.3	0.8
보험·연금	30.4	28.6	26.7	53.1	58.2
기타	0.8	0.2	2.8	4.2	2.0

단위 %

- 한국은 현금·예금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보험·연금과 비중 격차가 5%p로 줄어들음
- 미국은 전체 금융자산의 58%가 금융투자상품으로 구성되며 주식 비중도 40.2%로 상당히 높음
- 일본은 현금·예금 비중이 과반 이상이었으며 주식의 비중이 10.4%로 다섯 국가 중 가장 낮았음
- 영국과 호주는 보험·연금 자산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았으며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15.6%, 18.2%로 현금·예금보다 낮았음

- (전체가계자산 중 금융투자상품의 비중) 전체가계자산(금융자산, 비금융자산 포함)의 구성 중 금융투자상품 비중을 비교 시

각국 전체가계자산(금융자산+비금융자산) 비중 구성 비교(2021) 단위 %

		한국	미국	일본(2020)	영국	호주
금 용 자 산	현금·예금	15.5	9.4	34.5	14.6	8.4
	금융투자상품	9.0	41.5	9.4	8.4	7.1
	(주 식)	7.4	28.7	6.0	6.0	6.7
	(채 권)	0.8	1.6	0.9	0.1	0.0
	(펀 드)	0.8	11.1	2.5	2.3	0.3
	보험·연금	10.8	20.4	17.4	28.6	22.6
	기타	0.3	0.1	1.8	2.3	0.8
비금융자산		64.4	28.5	37.0	46.2	61.2

* 일본은 2020년도 통계 기준

- 미국이 예외적으로 41.5%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 국가는 8~9% 대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
 - 한국의 금융투자상품 비중은 금융자산 대비 25.4%로 높았으나 비금융자산까지 포함한 가계 자산 기준으로는 9.0%에 불과

3 시사점

- 2020~2021년 주요국의 가계자산 구성은 코로나19라는 공통의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2020년부터 코로나19 정점까지는 소비가 침체되고 저축률이 높아져 현금·예금 비중이 증가함
 - 2021년에는 백신 보급으로 인한 리오프닝과 누적된 저금리 기조로 주택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자산가치가 상승하였고 비금융자산의 비중이 증가함

- 한편 한국의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여전히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금융자산 또한 현금·예금(43.4%) 위주로 구성
 - 이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계의 안정적인 자산 배분을 위해 비금융자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투자상품,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 비중을 확대할 필요 있음
 - 미국의 주식투자 전통과 호주의 슈퍼에뉴에이션은 오랜 기간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된 자본시장·퇴직연금 제도의 결과물
 - 우리나라도 최근 도입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장기투자를 유도하고 금융투자가 문화로 정착되길 기대함

4 참고자료

- 통계청·한국은행 '제도부문별 국민대차대조표'
 - 한국은행 '금융자산부채잔액표'
 - 한국은행 '자금순환통계표'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Flow of Funds'
'Financial Accounts of the US – Balance Sheet of Household'
 - 일본 내각부 'SNA Annual Report on National Accounts for 2020 Summary'
 - 일본은행 '자금순환통계'
 - 영국통계청 'The UK National Balance Sheet Estimates'
 - OECD 'SNA 2008', 'Households'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 호주통계청 'Australi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Household Balance Sheet'
'Australian National Accounts: Finance and Wealth'
- ※ **(참고)** 본 보고서의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총계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